

농촌희망기획강좌/ 장성한마음공동체 남상도 목사 초청강연

일시 : 2008년 8월 7일(목) 14:00~16:30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2층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주최 : 희망제작소 농촌희망본부

후원 : 한국농촌공사

박원순 상임이사 인사말

작년에 목사님을 인터뷰 한 적이 있다. 목사님이 일을 하고 계신 곳을 둘러보며 농업도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생각과 실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다. 목사님 말씀 중 “황토 공화국을 만들고 싶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우리 땅에서 황토를 가지고 주거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우리 몸에 좋은 주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집단적 거주지가 되면 세계적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 당시 스위스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몸의 변화를 일기처럼 쓰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무투입 농업 또한 아주 인상 깊었다.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소규모 유통 체인을 만들어 대형 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 길목을 선정해 버렸다.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도 중요한데 목사님은 큰 자본 없이 샬터 현장에 먼저 가서 유통활동을 하고 있었다. 목사님 강의는 예언처럼 좋은 내용일 것이다.

남상도 목사 강연

지금은 작년과 비교해 또 다른 엄청난 변화가 있다. 우리 주변에 고정화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고정화 된 것들을 뒤엎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은 없다. 예전에 많을 강연을 나갔었는데 강연을 나가면 귀만 커질 뿐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황토건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세계에서 황토 건축은 우리가 가장 발달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돈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어도 계속 발달하고 있다. 좋은 것이라도 돈이 안 되면 사장되어 버린다. 흙 건축은 건축업자, 관 주도가 아닌 개인적 취향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 광주 일곡지구에 약사 부부의 청탁을 받고 황토 건축을 지었다. 이 부부는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황토집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건물이 어디 있느냐. 예술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90년 초반에 귀농 운동을 했고 90년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는 농촌 현장에서 더 이상 정치투쟁에 앞장서지 않았다.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때부터는 유기농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매출 규모는 100억 원이다. 산지 물류센터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게 되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청한 단체들이 30여 개가 되었는데 모두 잘 나가는 단체였다. 모두들 우리 공동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점수가 1등이었다. 우리는 이처럼 든든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나는 유기농의 한계를 알고 있기에 유기농을 하지 않고 있다. 유통을 장악하지 못하는 생산은 설움만 있을 뿐이다. 작은 단체는 좋은 중심지에 좋은 매장을 가지고 있어도 돈 많은 거대 매장이 들어오면 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광주의 각 구마다 매장을 가지

고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해 큰 수확을 올렸다. 하지만 10년을 내다보며 다시 생각을 했다. 큰 매장이 들어오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대문을 지키는 것으로 사전 전략을 짰다. 아파트 주변에 매장을 설치해 사람들이 중심지의 큰 매장까지 갈 필요를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나는 항상 10년을 내다보며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는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 것을 못하면 지금 잘하더라도 망한다.

황토 건축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중국 복건성 토호를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 복건성에는 수백 개의 토호가 있는 천 년 전에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멘트 건물은 오래가 봤자 100년 인데 흙이라는 것은 원리만 알면 몇 천 년은 유지 될 수 있다. 지금은 흙을 이용한 건축이 사장 되고 있다

지구는 천 년 이천 년 동안 네모라고 생각했다. 잘못 된 것이 몇 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주장한 사람들이 거의 종교인이었다. 가장 크게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농사다.

지금 우리는 화학 비료를 그만 사용하고 유기농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무투입이다. 분뇨도 안 넣는다. 축분과 인분, 비료를 넣는 것은 땅의 기를 막아 버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땅의 본래 성질을 잘 이용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무투입 농업을 처음에는 알아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정하고 있다. 전남의 기술원 박사를 되리고 같이 일본을 방문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밑바닥 작업을 하고 있다. 무투입 농사에 대해 100% 확신한다. 이 농법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수입 농산물을 막자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대안이 없으면 끌려가게 마련이다. 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이 세계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고 자가 채취한 종자만 사용하는 것이다.

가을에 책을 출판한다. 책을 쓰는 것은 조금 더 성숙하고 솔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을 쓰려는 이유는 황토연구로 많은 빛을 졌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왕 책을 쓴다면 판매를 100만 권 정도로 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건축, 건강, 농사,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대중이 좋아할 것인가였다. 요즘 가장 열풍이 되고 있는 것이 영어 열풍이었다. 나는 어학에도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중의 영어 서적을 독파하고 있다. 3월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10월이 되면 생활영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증명해 보일 것이다. 10월에 책이 만나오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라.

나의 꿈은 뒷산에 뽕나무를 심어 다시 의복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는 10년 동안 감기에 걸린 적도, 약을 먹어본 적도 없다. 건강의 원리를 알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는 평소의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나는 무더운 여름에 내복 2개를 입고 양말 몇 개를 신는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소재가 실크이기 때문이다. 실크는 몸의 독소를 밖으로 던진다. 건강에도 원리가 있다. 의학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계가 발달하는 것뿐이다. 내 스스로가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 행복하지 않는 학교는 가지를 말라. 모든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그것이 교육의 출발이다.

농사만 갖고는 농사가 안살아난다. 문화가 있어야 산다. 농촌의 문화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떠나게 되어있다. 농촌은 도시보다 더 좋은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좋은 공연을 보는 것만이 문화가 아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갖는 것이 문화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안정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

도시는 시멘트 문화의 꽃이다. 농촌의 문화에 황토 건축이 꽃을 피어야 한다. 너무 좋은 집 때문에 도시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한다. 그 앞에는 예술 자연 농업을 한다. 예술자연농법은 유기농과는 다르다. 한국 농산물은 엄밀히 말해 코덱스 기준(국제 유기농 인증 기준)에 의하면 유기농이 아니다. 코덱스 기준에 의하면 우리처럼 가뉘진 퇴비는 안된다.

미국 호주 유럽은 방목 때문에 자연산 퇴비가 가능하나, 우리는 갇혀진 곳에서 나오는 퇴비이므로 코덱스 기준에 맞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이것을 알면 수입유기농 농산물을 먹는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술 자연 농업이다. 인삼은 사람이 영양을 인위적으로 넣어 병충이 많지만 산삼은 땅 속의 영양분과 기만 받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병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질소 과다이다. 유기농은 질소를 많이 쓴다. 축산 분뇨의 질소도 같은 질소이다. 질소가 들어가면 빨리 성장하지만 병충해가 많아 약해진다. 최소한의 질소로 식물이 이겨낼 수 있다.

또 우측에는 유치원, 왼쪽에는 노치원을 짓고 싶다. 이것은 장성에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마다 있어야 한다. 전 세계의 농업 국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갖고 교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싸움을 하지 않고 수입농산물 반대만 외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광주에 기둥 없는 황토 2층 건물을 지었다. 황토집은 절대 기둥을 세우지 않는다. 중국에는 천년 전에 지어진 4층 토구가 있는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보고 대형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싶다고 생각했다. 대형오페라 하우스를 지어 안은 팬션, 밖은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30평 황토집을 짓는데 일주일이 걸릴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 이층 건물도 21일 만에 끝난다. 황토집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준비과정이 70% 다.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는 숙달이 필요하다.

흙집을 지을 때 5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안전성이다. 기초를 돌로 해서 튼튼히 하면 몇 백 년이 지나도 문어지지 않는다. 세계 역사 속에서 흙 건축은 대단하다. 그런데 왜 목조건축이 꽃을 피우고 다시 시멘트 건물로 돌아섰는가? 이는 도시가 있는 지역을 강을 끼고 발달했기 때문이다. 도시에 홍수가 나면 흙집은 다 문어진다. 그래서 흙집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은 돌로 기초를 튼튼히 하기 때문에 몇 백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편리성이다. 아무리 좋아도 불편하면 안된다. 나는 화장실에 안방으로 향하는 창문을 내어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하며 안방 텔레비전으로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는 건강성이다. 대부분 흙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이다. 흙집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집이 숨을 쉬기 때문이다. 수분조절이 되고 좋은 공기를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흙집의 가장 큰 장점이다.

네 번째는 에너지 절약이다.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것이 황토집이다. 기름값이 오르는 요즘에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예술성이다. 언제가도 변화가 있고 질리지 않는 집이 황토집이다. 아파트는 질리게 만들고 각이 있어 사람의 마음도 각지게 만든다. 나는 절대 집을 반듯하게 짓지 않고 유연하게 짓는다. 이는 자연의 모습이며 나의 가장 큰 선생도 자연이다. 나는 지붕도 뒷산의 높이와 맞추어 짓는다.

처음에 나는 건축에 대해 전혀 몰랐다.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나는 변한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항상 변한다. 인간도 같다. 내 몸의 오래된 세포가 5년 이상 가지 않는다. 안 바뀌고

계속 커가는 것이 암이다. 자연을 보면 변한다. 죽어있는 존재는 변치 않는다. 인간도 끝없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야 한다.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

80년대 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사였다. 85년 이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정치 투쟁 중심의 목사가 되었다. 90년 이후 문민정부 이후 유기농을 시작했다. 90년 3월 한마음 공동체를 창설했다. 95년 이후 유통을 강화했고 2000년도에 친환경 유기농을 했다. 문화가 무엇이나 스스로 반문하며 의식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천년도 황토건축을 최초로 접해보았다. 목회를 그만두고 흙집 전문가로서 하루라도 쉬어본적이 없다. 짧은 3~4년 동안 그만큼 발달했고 황토 건축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예술 친환경 농업의 스승인 일본의 기무라 선생이 방송에 소개 된 적이 있다. 기무라씨의 사과는 농약 사용이 전혀 없는 친환경 사과이다. 기무라씨의 사과는 약을 뿌린 사과보다 더 싱싱하고 맛있으며 부패도 없다. 자연농으로 돌아서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런데 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항상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법은 아주 천천히 가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가 가야할 농법은 무엇인가? 농약과 살충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세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외국의 농산물보다 더 나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한다. 이것이 세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술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 속의 독을 빼내야 한다. 현대병은 안 좋은 것을 빼내야지 먹어서는 안 된다. 건강법도 다른 것이 아닌 독소를 빼내야 하는 것이다. 항상 무엇인가가 넘쳐나서 병이 걸리는 것이다.

저수지 독에 수문이 있다. 저수지 독이 언제 무너지느냐? 물이 넘칠 때 무너진다. 적당하게 들어오고 적당하게 나가면 절대 안 문어진다. 걱정하면 수명이 다 되어도, 약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 사람도 같다. 사람은 유전, 성장 시기, 탄생시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이 3가지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필연적으로 좌우된다면 하느님은 너무 하신 것이다. 이것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면 하느님은 믿을 사람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약하게 태어나도 적당하면 절대 안 문어진다. 70~80대에 죽는다는 것은 비참하게 죽는 것이다. 생명은 더 살고 싶은데 병에 걸려서 두 가지가 충돌해서 고통스러운 것이다.

무엇을 채우려 하지 말고 빼내라. 인간의 손이 들어간 땅과 자연적 땅과 비교해 보면 자생적으로 조성된 땅은 내, 외부의 온도가 차이가 별로 없다. 인간의 인위가 들어가면 온도차가 크다. 인분에는 영양분도 있지만 독이 있다. 비독충을 빼내야 한다. 건강과 땅은 같다. 땅은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폐교에 자연 유치원을 세웠다. 지금은 200명 정도인데 선착순을 서서 대기한다. 암환자의 80%가 항암제 때문이라고 한다. 현대의학에 한계가 있다. 나는 51한 살에 돌잔치를 하자고 한다. 51살은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며 1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깐 말이다. 건강과 돈만 있으면 세상은 재밌다.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세계화되는 것이 꿈이다. 이것만이 다국적기업의 문어발의 발을 자를 수 있다. 발이 잘린 문어발이 되면 같이 공중하든지 죽든지 되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다.

<질문>

1. 30평짜리 황토 집을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산에서 개간 했을 때 땅의 독을 빼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집은 짓기 나름이다. 옵션에 따라 다르다. 일반 시멘트 건물에 1.5배가 더 든다. 황토흙집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 재료를 일일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든다. 내가 짓는 집은 한옥과 다르다. 한옥은 좁고 북풍이 심하다. 북풍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먼저 천장을 튼튼히 하고 그 위에 흙을 올리고 그 위에 지붕을 덮는다. 지붕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재료가 많이 든다.

산에 가면 비독층이 없다. 그대신 개간할 때 생땀이 나오면 안된다. 생성된 땅이 속으로 들어가고 뒤바뀌면 안 된다. 개간지를 해도 표토층을 건들지 않아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 마을 공동체 운영할 때 동네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우리는 마을 공동체가 아니다. 처음 꿈은 그랬다. 90년 초 사회주의 이상에 젖어 있었다. 공동생산, 공동 소유, 공동 분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깨졌다. 그것은 어렵다. 그 후 가치관에 변화가 있었다. 소유는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풀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 갈수록 빛만 진다. 왜 그럴까 생각했다. 답을 찾은 것이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이다. 만평의 땅을 열 명이 공동 농사 지은 것 하고, 천 평 썩 나눠 지은 것을 비교하면 이론상으로는 공동 농사가 더 큰 이윤을 낼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 외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공동체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다. 만약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밤 12에 비가 왔을 때 모두가 비가 오다가 말겠지,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돌보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개인이 농사를 지을 경우 비가 더 많이 올꺼야, 누구도 손을 못되니 내가 나가야 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생산력에 큰 차이를 나게 만든다. 90년대 공동소, 분배를 했는데 실패해서 유통만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3. 귀농과 관련해 목사님이 지금하고 있는 운동과 적합점을 찾는다면?

귀농을 하다가 다시 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 귀농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함부로 귀농하라고 하지 않는다. 현재 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농민도 수지가 맞지 않아 도시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의지만 갖고 도전하는 것이 쉽겠는가. 귀농을 하더라도 욕심을 버리고 시작해야 한다. 농사를 지어 소득을 내겠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집단 귀농을 하면 망한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 이다. 황토집을 지으면서도 각자 흠어져 자기 일을 하다가 일이 생길 때 같이 뭉치도록 한다. 필요할 때 응집될 수 있는 공동체가 현대사회에 더욱 필요하다.

4.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육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또 대문지키기를 어떤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가?

먼저 대문지키기에 대해 말하자면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처음에 광주의 구 마다 직판장을 세웠다. 초창기에는 잘 팔린다. 근데 이쪽으로 돈 많은 자본가들이 들어오면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한창 잘 될 때 직판장을 그만 두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 입구에 여러 군

데 설치했다. 중요한 대문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광주지역만이 큰 마트가 잘 안 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것은 나는 이렇게 본다. 자녀에 대해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된다. 자기 멋대로 나두고 먼 발치에서 봐줘야 한다. 그 순간에는 불안하지만 일일이 관섭하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는 제안만 하고 결정은 자녀에게 맡겨야 한다.

자녀를 너무 어리게 보지마라.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세계를 접하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어주고 멀리서 바라봐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공부는 진짜 만 명 중 한명만 하면 된다. 학자가 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공부하고 대학가도 다 써먹지 못하고 전부 엉뚱한 곳에서 헤맨다. 우리는 모두 목표가 1등이다. 이것은 절대 아니다.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불안해 하며 참견하면 안 된다. 다 소나무만 될 수 있겠는가. 가능성을 보라.

4. 농촌에서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나?

하루 일당 7만원. 여자는 5만원.

5. 유기농대회를 남양주시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좋은 말씀 부탁 한다.

축분, 인분은 땅에다 정화시키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서 자연 발효 시켜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술자연농을 접한 것은 우연이다. 교포 3세 사업가가 한국의 농산물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일본에 와서 배운다면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100톤이나 되는 인분과 축분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연퇴비에 관한 기술을 배우러 갔었는데 우연히 지바현에서 퇴비를 쓰지 않고 당근을 재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술 자연농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동물들도 자기의 인분이 있는 풀은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만이 퇴비로 키운 것을 먹는다. 구지 땅에만 인분을 넣는 것은 어리석다.

광주의 지자체 장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광주가 비엔날레를 한다고 문화도시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시민들의 집 경관이 문화적이어야지 문화도시다. 집이 동네의 문화적 유산이어야 한다,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 지은 집은 담 안에는 엄청난 조경을 해 낫을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하고 지나간다. 내가 지은 집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준다. 집이 그 집의 문화이다. 내가 사는 집이 지역사회와 동일한 문화를 가져야지, 담을 쌓아 경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나주 시장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나주 시장이 2년만 빨리 왔으면 하고 후회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주에 천년 염색 전시공간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황토건축으로 했다면 최고의 명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콘텐츠와 공간 모두가 함께 가야지, 분리되면 그것은 1회적 잔치에 불과하다.